



양계 안테나

김동진 본지 편집장

높게 형성되는 산란 노계가격 수출 이상기온 감지된다

“노계를 팔면 중추를 살 수 있다”라는 말은 과거 1970~80년대 유행했던 말이다. 당시 닭 수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일로에 있었고, 계란가격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노계가격 역시 높게 형성되면서 노계가 농가에 큰 보탬을 가져다 준 셈이다.

그러던 것이 1990년대 이후 노계가격이 1수당 1,000원을 넘을 때도 있었으나 평균 400원~500원을 유지해 왔고 2007년은 200원, 심지어 100원까지 밀도는 가격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그나마 지난해 초에는 본회에서 노계알선사업을 통해 최소 350원의 가격을 묶으면서 가격상승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제는 노계가격이 일본 등 선진국처럼 낮게 형성되면서 렌더링을 통한 비료화 정도로 쓰이지 않을까 예상이 되었다. 사실 일본의 경우는 과거나 지금이나 노계가격이 1수당 150원을 넘지 않는다. 50원의 검사, 처리비용을 제외하면 농가의 수익은 겨우 100원밖에 수익으로 잡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은 지난 2008년 8월을 기점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350원이던 노계가격이 8월부터 400원으로 상승하더니,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했던 노계가격이 2009년 1월 700원, 3월에는 1,000원선을 훌쩍 넘어섰다. 5월에는 1,600원까지 치솟았고, 6월 19일에는 양계속보를 통해 발표되던 노계가격이 발표되지 않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업체들간의 거래가격 차이가 크게 형성되었다는 것이 당시의 상황설명이다.

이 같은 요인이 발생하게 된 주요인은 베트남을 중심으로 노계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연도별 닭고기 수출 경향을 살펴보면, 노계가격이 낮게 형성되던 1997년도에는 9개 업체에서 베트남, 일본, 홍콩 등으로 238만톤의 닭고기를 수출했으나, 2008년 들면서 21개 업체가 베트남, 홍콩, 북한 등으로 평년의 3배 정도가 많은 748만톤을 수출했다. 그 만큼 노계수요가 증가한 것이다. 금년에는 전반기까지 26개 업체에서 480만톤이 수출될 정도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면서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 노계가격이 1,350원으로 하락하고 수출이 중단

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물론 높은 단가로 인한 수출중단도 있겠지만 수출량이 늘다보니 일부 업체에서 수입국의 조건에 맞지 않는 제품이나 규격들을 수출하면서 국내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진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출확대로 노계가가격이 높아 농가수익이 지속된다면 농가로서는 '금상첨화' 겠지만 이는 결코 바람직한 현상으로만 볼 수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은 노계가가격이 100원 전후이다. 노계가가격이 높으면 수출에도 경쟁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노계가가격이 다시 정상궤도(?)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추석 이후 계란이 체화되면 노계가 대량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에 공백이 생긴다면 가격하락은 예정된 수순으로 볼 수 있다.

수출확대 등을 통해 농가 수익원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고, 노계로부터 거출하는 의무자조금 납부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노계가가격이 형성되어 채란업계가 안정을 찾길 기대해 본다.

제16회 전국양계인대회 2010년 양계산업 발전의 재도약

2009 전국양계인대회가 오는 9월 18일 경북 상주 상주시민운동장 실내체육관과 주변에서 성대하게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양계협회 창립 이래 가장 규모가 크고 짜임새 있게 계획되어 있다.

양계인대회를 처음 개최한 해는 1986년 6월 충남 계룡산에서 양계협회가 발족 된지 13년 만에 이루어졌다. 이후 각 지회 및 지부를 주축으로 매년 개최되었으며,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0년 이후 양계경기 악화 및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으로 한동안 개최되지 못했으나, 지난 2007년부터 다시 시작되어 3회 연속 개최되고 있다. 2000년 김해청소년수련관에서 13회 대회가 열릴 때까지 400여명의 양계인들이 모인 12회 당진대회가 가장 많았지만 당시 전체 양계인 5,000여명을 대변하기에는 규모면에서 대외적인 입지를 자랑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다.

이번 대회는 양계회원들의 단합은 물론, 국제경쟁력 향상방안 모색, 안전한 양계산물 생산을 목표로 2010년 양계산업의 새 도약을 위한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자리가 마련될 것이다. 특히,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양계인대회 역사 이래 처음으로 참석하여 특강을 마련하는 등 양계인들의 위상을 높여줄 예정이다.

부대행사로는 양계산물 요리 경연대회가 제2행사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실시되며, 양계산물 시식회 및 축산기자재 전시가 오후 2시부터 행사장 주변에서 펼쳐져 명실상부한 전국 양계인들의 축제행사로 승화될 예정이다. 양계인 및 상주시민 약 6천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이번 행사에 농가 및 관련업계, 상주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일본 나고야코친종의 보존과 현실 국내 재래닭 '우리맛닭'으로 승부

일본의 대표적인 재래닭을 꼽으라면 난육겸용종인 '나고야코친'이다. '나고야코친' 종의 본고장인 아이치(愛知)현의 나고야 지방은 이 품종을 지키고 보급하는데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일제 강점기를 전후하여 나고야코친종은 우리나라에 보급되기도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익히 잘 알려진 품종이다. 나고야코친종은 100년 전 명치시대에 중국의 바브코친종과 현지 일본 재래닭과의 육종개량을 통해 탄생된 개량품종 1호이며, 맛과 성장률에서 기존의 재래닭과 차별화가 되었기 때문에 일본으로 널리 퍼져 나갔다.

하지만 60년대 이후 외국으로부터 수입종이 들어오면서 거의 멸종위기까지 맛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이 당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종의 대량 수입으로 재래닭 품종이 상당수 사라진 것과 때를 같이 한다. 하지만 일본인들이 오래 전부터 먹던 맛을 다시 찾기 시작하고 아이치현 농업시험장에서 다시 부활을 꾀해 과거의 품종을 그대로 이어 갈 수 있게 되었고 소비도 다시 늘기 시작하였다.

육계는 보통 120일에 2.3kg을 키워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나고야코친종 닭고기는 일반 육계의 5배, 계란은 2.5배를 받고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계란은 연간 250개 정도 생산이 되며, 보통계란(60g)보다 작은 50~52g정도지만 명절때나 기념일에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다고 한다. '나고야코친'은 2개의 부화장에서 연간 2,000~3,000수의 종계를 분양하고 있으며, 외국종과 차별화하기 위해 계획생산을 하는데 농장수는 80개 농장이며, 도계장은 2개의 전용 도계장을 통해 유통되면서 일본 소비자들에게 깊이 파고들어 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1994년부터 1997년까지 4년간에 걸쳐 본회를 주축으로 '재래닭 복원 및 육용화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본회 고문인 오봉국 박사(서울대 명예교수)를 주축으로 실시된 이 사업은 전국 방방곡곡에 산재해 있는 재래닭들을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국내 순수 재래닭을 복원하는데 성공하였고, 육용화사업을 통해 기존의 재래닭과의 차별화를 꾀하기 위한 작업도 병행하였다.

이후 연구 결과물은 축산과학원으로 이관하여 지금까지 품종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최근 산란성과 산육성이 우수한 '우리맛닭'을 출시하여 대형 부화장 등에 일정량을 보급하면서 실용화를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에 비해 훨씬 늦게 재래닭 복원 및 육용화사업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일본에서 수입을 검토할 정도로 우리 재래닭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나고야코친의 명성만큼 '우리맛닭'이 국민들에게 우리 입맛을 찾아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양계**